

전인적 청소년 교육을 위한 스포츠 활용: 최근 국제 동향과 학교체육에의 시사점*

최의창(崔義昌)**

논문 요약

국내외를 막론하고 청소년의 문제점에 대한 우려와 건전한 성장에 대한 관심이 폭등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영국, 캐나다, 유럽 등 선진 각국에서는 스포츠와 기타 신체활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학생들의 전인적 발달을 위한 다양한 차원에서의 노력을 경주해오고 있다. 본 연구는 청소년교육을 위하여 국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장 최근의 스포츠 정책 및 활용 사례, 그리고 실천 프로그램들을 찾아내어 특징을 분석한 후, 한국 학교체육에서의 적용을 위한 실천적, 정책적 시사점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한국 청소년의 현황과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체육활동이 청소년의 문제점 해결에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다양한 시각의 논의들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현장에 적용, 실천되고 있는 스포츠 활동을 내용으로 하는 청소년 정책, 체육프로그램, 활용현황 및 효과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알아본다. 이를 바탕으로 각 프로그램들의 특징을 분석한 후, 한국 학교체육에서의 활용을 위한 실천적 시사점과 정책적 시사점을 구안해낸다. 그리고 향후 한국 청소년을 위한 체육정책 및 학교체육 개선에 필요한 몇 가지 사안들을 제언한다.

주요어 : 청소년교육, 학교체육, 체육정책, 청소년 발달

* 본 논문은 2012년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간접연구비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논문임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교수

I. 서론

“청소년은 나라의 미래다”라는 말이 있다. 조금의 틀림도 없는 사실이다. 그런데, 근래의 사태를 볼 때, 한국에 미래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져가고 있다. 학교 폭력의 일상화, 자살율의 증가, 대학진학중심의 일상생활, 우울증과 불안증의 증가 등과 같은 현상들이 도를 지나칠 수준으로 만연해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청소년들은 너무도 심각한 정신적, 정서적 스트레스 하에 놓여있는 것이다. 이런 상태의 청소년들로 가득한 나라의 미래를 과연 장밋빛으로만 볼 수 있을까?

최근, 국가적 관심사로 떠오른 학교폭력에 대한 정부의 대처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에 까지 놓인 한국 청소년 문제의 현재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학교교육에서 인성교육을 더욱 강화하는 다양한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 가운데 특히, 학교폭력의 주요 해결안으로서 체육수업에 대한 많은 기대를 보여준 조치가 있었다. <201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중학교 체육수업 시간을 현행 8시간에서 12시간으로 대폭 증가시킨 것이다. 기존보다 50%나 더 많은 수업시수를 확보한 것이다. 정규교과시간이 아니지만,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으로 활용하도록 교육과정으로 명시해놓은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는 2013년도 교과부의 구체적인 학교체육활성화정책 보완발표로 인해서 보다 더욱 확고해졌다(교육부, 2013).

이것은 학교체육에 대한 기성세대 인식의 대전환이 이루어졌음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증거라고 하겠다. 1970년대 이전 출생한 40대 이상의 기성세대에게 체육수업은 노는 시간, 체육교사는 권위주의적 교사의 대표로서 인식되었다. 체육수업은 폭력을 희석시키는 것이 아니라, 폭력이 난무하도록 조장하는 환경으로 각인되어있다. <말죽거리잔혹사>나 <여고괴담> 등의 영화 속에서 묘사되는 체육교사들을 한 번 떠올려보라. 그런데, 2010년대 한국에서 체육수업은 학교폭력을 해결할 수 있는 대표주자로서 적극적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동향도, 최근만의 추세도 아니다. 다른 나라들에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학생들의 반사회적, 비행적 성향을 감소시키는 데에 체육활동(스포츠, 게임, 엑서사이즈 등을 모두 망라하는 종합표현)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실천하고 있는 중이다. 스포츠사회학자들은 “폭력성”을 감소시키는 사회적 안전판(safety valve)으로서 스포츠를 주목하고 남성들이 장기간 단체생활을 하는 교도소, 군대 등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언해왔다. 격렬한 신체활동을 통해서 불안, 불만, 스트레스, 분노 등의 부정적 감정들을 쏟아내게 함으로써 일상에서의 폭력적 성향을 사라지도록 한다는 것이다(서울대학교 스포츠과학연구소, 2005; Eime, Young, Harvey, Charity & Payne, 2013).

비행청소년들(misbehavior, disaffected, alienated youth)에 대해서도 동일한 논리가 적용되어 이들이 사회적 적응력을 높이고 반항적 성향을 감소시키는 데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목소리

가 오래전부터 들려왔다. 청소년심리학자, 스포츠교육학자, 여가레크리에이션학자 등등 다양한 방향에서 청소년들의 정상적 성장을 돕는 치료적 활동과 교육적 활동으로서 스포츠와 신체활동의 효용성을 강조하였다(Sanford, Duncombe & Armour, 2008). 최근에는 스포츠가 사람의 두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력을 보여주는 뇌과학적 효용성까지 발견되면서, 훨씬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근거를 확보하고 있는 중이다(이규일, 2012; 조옥상, 2012).

이와 함께, 가장 최근에는 긍정심리학의 개념과 방법론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의 밝은 측면, 청소년들의 긍정적 차원에 대한 보다 더 적극적 개발과 발달에 초점을 맞춘 연구와 실천노력들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전인적 청소년 육성"(positive youth development)으로 일컫는 연구분야가 급격히 형성되고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노력으로 청소년들이 삶에 필요한 긍정적인 자질과 기술을 다루는 "생활기술"(life skills)의 지도와 교육방안을 구안하고 있는 중이다(Thompson, 1997; Vella, Oades & Crowe, 2011).

최근 체육교육 분야에서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체육수업, 스포츠클럽, 그리고 운동부 활동을 통해서 어떠한 생활기술들을 어떻게 습득하는지를 알아보는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었다(김선희, 2010; Holt, 2008). 이 연구들은 주로 축구, 농구, 야구 등과 같은 단체 스포츠를 통하여 학생들의 인내심, 협동심, 스포츠맨십 등과 같은 정의적 영역의 가치들과 타인과의 소통기술, 문제해결 능력 등과 같은 언어적, 인지적 측면의 자질들이 개발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물론, 운동하는 것 그 자체로 이러한 자질들이 자동적으로 생겨나는 것은 아니고 다양한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며, 특히 체육교사와 코치의 숙선수범하는 노력과 실천철학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Arnold, 1997; Clifford & Feezell, 2009; Ehrmann, 2011; Haskins, 2010).

이러한 연구와 함께, 청소년들에게 스포츠를 통하여 생활기술과 긍정적 자질들을 적극적, 의도적, 체계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 그 효과성을 검증하는 연구들도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골프를 내용으로 하는 "*The First Tee*", 미식축구를 내용으로 하는 "*Play It Smart*", 종목선택이 자유로운 "*SUPER*"(Sports United to Promote Education and Recreation) 등의 프로그램들이 소개되었다. 또한 한시적이지만, 기업들의 후원을 받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행된 프로그램도 속속 생겨나고 있다. 영국에서는 *Youth Sport Trust*의 후원을 받은 SSLfS(*Sky Sports Living for Sport*)와 유명 금융회사에 속한 HSBC은행이 직접 지원한 HSBC/OB(*HSBC/Outward Bound*) 프로젝트가 좋은 예가 되겠다(Sanford, Duncombe & Armour, 2008; Weiss, 2011).

본 연구는 이처럼 지난 2000년 이래로 청소년교육을 위하여 국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스포츠활용 사례와 프로그램들을 찾아내어 특징들을 분석한 후, 한국 학교체육에서의 활용을 위한 실천적, 정책적 시사점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한국 청소년의 현황과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체육활동이 청소년의 문제점 해결에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다양한 시각의 논의들을 살펴본다(2절). 다음으로 현장에 스포츠활동을 내용으로 하여 적용되고 실천되고 있는 청소년 정책, 체육프로그램, 활용현황 및 실천노력 전반에 대하여 알아본다(3절). 각 프로그램들의 특징을 분석한 후, 한국 학교체육에서의 활용을 위한 실천적 시사점과 정책적 시사점을 구안해낸다(4절). 마지막으로 향후 한국 청소년을 위한 체육정책 및 학교체육 개선에 필요한 몇 가지 사안들을 제안한다(5절)

II. 청소년의 성장과 체육활동의 역할

1. 한국청소년의 문제점 현황

교육기본법 제2조는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어 인간다운 삶과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학교교육은 이에 따라 체, 덕, 지의 균형 있는 교육을 통해 개인과 사회 및 국가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 선진국인 독일, 영국, 미국, 호주, 일본 등은 유청소년의 건강한 스포츠 활동을 정책적, 제도적으로 적극 보장함으로써 청소년의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건전한 인성과 사회적 능력을 함양시키는 교육적 노력을 충실히 실행함으로써 민주 국가 발전의 초석을 다져오고 있다(Carlsson, & Hedenborg, 2011; Lheraud, Meurgey & Bouchet, 2011). 그렇다면 현재 우리 학교교육은 이를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가?

불행히도 우리나라 청소년은 그러한 기본 권리를 제대로 누리고 있지 못하다. 권리는 둘째치고 오히려 더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 아이들은 대학입시를 위해 더 많은 시간과 더 높은 비용을 투자해야만 낙오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은 점차 악화되고 있다. 공부이외의 나머지는 모두가 부차적이고 중요치 않은 것으로 간주되며, 상급학교와 대학진학에 결정적 역할을 미치지 않는다. 청소년들은 학교교육의 목적이 인격을 높이고 교양을 쌓는 것보다는 취업에 필요한 개인적 스펙 쌓기 과정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

이기적 경쟁 중심의 학교진학 시스템에 덧붙여, 우리 사회의 성인들이 보여주는 작태들도 우리 아이들을 이기적으로 만들어간다. 사회의 지도층이나 공공의 관심대상이 되는 정치인, 행정가, 기업인, 연예인들이 성공지상주의, 일등지상주의, 그리고 물질만능주의를 보여주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인성적으로 바람직하게 자라기를 소망하는 것 자체가 헛된 꿈이다. 사회 속에서 이런 모습이 일상이고 정상인데, 입시가 만사인 학교에서 인성이란 것이 도대체 길러질 수 있겠는가?

이처럼 지식 위주의 학생 선발과 교육 정책, 사회적 환경 등 청소년들을 둘러싼 비교육적 교육 환경은 결국 학교교육의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목적인 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결과 세 가지 커다란 문제점을 낳고 있다. 첫째, 청소년의 건강과 체력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 초중고 학생들의 비만률은 2002년 9.4%에서 2008년 11.2%로 크게 증가했으며, 학생들의 체력 등급도 2000년에 비해 1~2등급은 12.3%가 줄어들고, 4~5등급은 15.2%가 증가하였다(교육부, 2013). 둘째, 청소년의 정서적 건강 상태 또한 심각한 수준이다. 청소년 우울감 경험률은 2005년 29.9%에서 2009년 37.5%로, 스트레스 인지율은 1998년 28.8%에서 2009년 30.0%, 20세~24세 자살 사망률은 1999년 인구 십만 명 당 12.5건(492명)에서 2009년 20.3건(640명)으로 증가했다. 셋째, 청소년들의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이 매우 낮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지적 역량은 OECD 36개국 중 2위이지만, 공동체 참여와 사회적 협력도를 보여주는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은 35위에 불과하다(교육부, 2013;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2).

현재 우리 청소년들의 학습시간은 OECD 국가들 중 최고 수준이나, 운동시간은 오히려 줄고 있다(10~24세 청소년의 하루 운동 시간은 1999년 14분 36초→2009년 12분 4초). 또한 주5일 수업제 실시 이후 여가 시간은 줄고 사교육 참여 비율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청소년의 하루 평균 여가 시간은 2004년 4시간 33분→2009년 4시간 05분, 토요일 사교육 시간 2004년 51분→2009년 1시간 02분). 운동 및 여가, 수면 시간의 부족으로 인한 불균형한 발달과 과도한 스트레스는 행복 수준과 삶의 만족도가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학교교육에서의 불균형한 지식 편중 교육은 청소년의 과도한 스트레스와 정서적, 사회적 역량의 부족을 초래하며, 결국 초중고생의 학교 폭력을 유발, 심화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학교폭력 피해율 2009년 9.4%→2012년 12.3%). 여기에 청소년 유해 매체의 증가(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 고시된 유해 간행물, 영상물 등의 건수는 1997년 5,104건→2007년 26,639건)와 인터넷 및 온라인 게임 사용 증가(9~15세 사이 아동의 인터넷 중독률은 2009년 11.1%→2010년 14.0%)는 청소년의 신체활동 시간을 더욱 감소시킴으로써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최의창, 박정준, 2012).

<표 1> 체육활동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Merkel, 2013, p. 157)

긍정적 효과	부정적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체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체활동 증가 근력 강화 전생애에 걸친 신체적, 정서적 혜택 비만률 감소 만성질환 발병률 감소 건강 증진 운동 능력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체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상 자격미달의 코치 안전관련 문제 정책/실천수준에 활용가능한 스포츠과학의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리적 우울 감소 자살충동 감소 고위험 행동 감소 청소년기의 올바른 행동 증진 기본 운동 능력 발달 자존감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리적 엘리트 스포츠 선수로서의 스트레스 승리에 대한 집착 과도한 경쟁심 수상 경력에 대한 압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사고 기술 강화 삶의 교훈 제공 올바른 사회적 행동 증진 시간 활용 기술 강화 학습 성취 발달 목표 설정과 열정 발달에 도움 인성 함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시설이나 장비에 대한 자원 부족 참여증진 정책 부족 비용 사회경제적 지위나 지역, 성에 따른 차별

2. 청소년 교육과 스포츠의 역할

1) 스포츠를 통한 긍정적 청소년 발달

청소년과 스포츠를 바라보는 그동안의 관점은 소위 “결핍감축”(deficit reduction)의 시각에서 이루어졌다. 즉, 청소년들이 지니는 다양한 형태의 부족한 점들(음주, 비행, 소외, 폭력, 우울 등)에 대해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줄여주거나 예방시켜주는 수단과 도구로써 스포츠를 활용하였다(김선희, 2012). 비정상적인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시켜주는 방식으로 바라본 것이다. 음주, 비행, 도박, 폭력의 감소와 직접적, 간접적으로 연계되어있다는 연구결과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표 1 참조).

이것은 물론, 그 자체로서도 긍정적인 관점이다. 하지만, 청소년이란 존재를 다양한 문제거리의 종합세트로 간주하는 시각은 부분적으로만 옳다. 청소년은 수많은 가능성과 긍정적 자질을 지니고 있다. 청소년이 지닌 가능성과 긍정적 가치를 최대한으로 이끌어내고 발달시키려는 노력이 함께 필요하다(Damon, 2004). 발달심리학, 청소년심리학, 스포츠심리학, 그리고 스포츠교육학 분야에서는 이러한 관점을 취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접근을 포괄적으로 “Positive Youth Development”(긍정적 청소년 개발, 전인적 청소년 육성)으로 부르고 있다.

결핍감축이 아니라 “강점기반”(strengths-based)의 시각에서 청소년들의 장점들을 최대화시키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기에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발달자산”(developmental assets)이라고 불리는 성장과 발달의 기본재료들을 하나씩 하나씩 모아가면서 축적하도록 돕는다. 가장 널리 알려진 대표적인 발달자산은 발달심리학자 Learner 등(2005)이 주장한 것으로서 5C(competence, confidence, character, caring/compassion, connection)라

고 불리운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수행력, 자신감, 인간성, 배려심, 관계력 등의 자질특성을 함양함으로써 온전한 성장발달을 촉진하고 보다 성공적인 생활을 가능하도록 만든다.

스포츠 분야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청소년기 발달자산이 스포츠를 통해서 길러질 수 있음을 여러 연구들에서 밝혀내고 있다. Zarrett 등(2008)은 미국 초중등학교에 걸쳐 방과후활동에 참여한 5-7학년 11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스포츠에만 참여한 학생들보다 기타 다른 활동들도 함께 한 학생들이 훨씬 더 높은 PYD점수를 얻었음을 보고하고 있다. 참여기간이 길고 지속적인 수록 훨씬 더 높은 점수를 얻었다. Learner의 5C 개념이 유용한 것이기는 하여도, 연구결과 스포츠 상황 속에서 모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닐지 모른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Jones, Dunn, Holt, Sullivan 및 Bloom, 2011). Cote와 Gilbert(2009), Vella, Oades 및 Crowe(2011) 등 스포츠에서 독특한 5C를 제시하는 연구자들도 생겨나고 있다.

2) 문제 청소년을 위한 스포츠의 활용

청소년 교육에 있어서 스포츠의 역할이 부각되는 또 다른 분야는 위험수위에 처해있는 청소년영역이다. 보통의 범주를 벗어나 “문제아”(at-risk youth)로 일반적으로 통칭되는 “골칫덩이” 청소년들은 다양하게 표현된다. 아주 강한 뜻의 “비행”(deviance)이나 “폭력”(violence)에서부터 완화된 의미의 “부적응”(maladapted)이나 “소외”(alienated) 청소년까지 폭넓은 스펙트럼을 가진다. 최근에는 다소 덜 비하적인 표현들인 “궁정적이지 않은”(disaffected), “어울리지 않는”(disengaged), “순응적이지 않은”(disruptive) 등과 같은 용어들이 좀 더 선호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경제적으로 어렵고 소외된 부류에 속한”(under-served)이란 용어도 여전히 많이 쓰이고 있다.

정상범위를 벗어난 위험한 상태의 청소년은 전 세계적인 이슈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특히 선진국으로 진입한 국가일수록 청소년 문제가 더욱 더 심각한 상태로 함께 발전해나가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학교폭력, 왕따, 약물중독, 인터넷중독, 성폭력 등은 이미 학교의 울타리를 벗어나 사회적 문제화된 상태다. 학교내에서 정보제공과 홍보 등을 통하여 제도적 방안을 실시하거나, 보다 적극적으로 학교폭력위원회나 학교보안관 등 다양한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장에서의 실질적 효과는 그다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스포츠는 오랫동안 문제아들의 계도를 위한 효과적 도구로서 널리 활용되어왔다. 주로 남자 아이들인 문제 청소년들의 내부에 쌓여있는 반항기를 분출시키고 폭력성을 방출시키는 안전판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가동시킨 것이다. 소년원을 다룬 영화 등에 농구나 축구 등을 많이 하는 장면들이 기억날 것이다. 실제로, 선진국에서 실시한 연구를 살펴보면, 소년원내의 스포츠 활동을 통해 청소년 범죄율이 낮아지고 재범률도 감소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물론, 이와 반대로

축구나 미식축구같은 접촉성이 강한 스포츠가 일시적 폭력성을 증가시키는 사례도 찾아볼 수 있다. 사실, 연구조사에도 단체스포츠(미식축구, 농구, 럭비 등)에 참여하는 학생선수들의 도덕성(스포츠맨십) 점수가 일반학생들보다 낮은 사례도 많이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인 수준에서 이야기할 때, 문제행동의 감소를 위한 스포츠 활용은 (특히, 남학생의 경우) 여타 다른 방식들 보다 훨씬 용이하고 효과적이라는 점에 대해서 많은 이들의 호응을 얻어왔다.

최근 증가하는 청소년 스포츠 참여와 함께, 이러한 동향을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는 매우 체계적인 방안으로 재검토하고 재활용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다소간의 부정적 효과가 염려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스포츠 활동은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적용되었을 때, 정서적, 정신적, 신체적으로 긍정적인 다면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바람직한 방안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특히,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책들이 제안되고 그 효과를 검증받음으로서 이러한 추세는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비행청소년 교육을 위한 체육으로는 미국의 Hellison(2010)이 개척한 TPSR (Teaching Personal- Social Responsibility) 프로그램이 가장 유명하지만, 최근 영국에서의 체계적인 동향 역시 주목할 만하다.

지난 10여 년간 영국정부는 PESSCL, PESSYP, NOPEs, *Positive Futures* 등의 정책을 실시하여 청소년 스포츠를 진흥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다. PESSCL(*Physical Education School Sport Club Link*)은 2003~2008 기간동안 1,500,000,000 파운드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졌다. 그 후속정책으로 2008~2011기간동안 755,000,000파운드의 예산을 들여 PESSYP(*Physical Education Sport Strategy for Young People*) 계획을 수행하였다. 곧 이어 2003~2009 기간동안 NOPEs(*New Opportunities for PE and Sport*) 정책을 수립하고 751,000,000파운드를 투자하였다. 가장 최근에는 *Positive Futures*라는 스포츠 활동을 주요 프로그램으로 포함한 정책적 지원책을 마련해서 실행하고 있다. 이렇듯 꾸준하고도 대규모의 일반 청소년 및 문제 청소년들을 위하여 꾸준히 진행되고도 규모있는 체육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적용함으로써 실제적 효과를 거두어들이고 있다(정현우, 박정준, 최의창, 2013; Collins, 2013).

3) 전인교육을 위한 스포츠의 기여

체육교육이 정규교육제도 내에서 교육적 가치를 인정받게 된 계기는 미국의 신교육 운동이었다. 이로 인해 아동은 신체적, 인지적, 정의적 차원이 하나로 성장해야만 하는 “전인”(whole person)으로 간주되고, 학교에서의 교육은 지적 능력만이 아니라 모든 차원의 자질이 균형있는 발달을 이루어야 한다는 전인교육의 철학이 확립되었다. 그리고 체육은 그 철학의 영향을 받아 신체육의 체육철학을 발전시킨 것이다. 듀이의 진보주의가 체육분야에도 영향을 미쳐 아동을 지덕체가 골고루 균형있게 성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신체육 운동(New Physical Education)

이 촉발된 것이다. 도수체조중심의 체력과 체격발달의 도구로서의 체양(physical culture)이나 체련(physical training)이 아닌, 전인적 자질의 함양을 도모하는 체육(physical education)으로서의 체육개념이 생겨나고 자리잡게 된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물론 서구사회에서는 스포츠 활동이 체육교과의 주된 내용이 되기 시작하면서 전인적 자질보다는 게임을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기능위주의 체육수업이 강화되었다. 특히, 20세기 후반부터 건강과 체력이 강조되는 학교체육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신체활동을 지덕체의 균형적 발달을 위한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은 점차 기력을 잃어가게 되었다. 체육은 신체적 발달을 책임지는 교과로서의 입지만 굳혀지게 된 것이다. 체육을 통한 전인교육의 이상은 지속적으로 쇠퇴하게 되었다. 하지만, 청소년의 정신적, 정서적 상태가 곤경에 처하게 되고 다른 방안들이 힘을 쓰지 못한 채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내치닫게 되면서, 스포츠의 긍정적 인성발달역량에 다시금 고개를 돌리는 경향이 생겨나고 있다. 특히, 몸과 마음까지 가다듬는 전인교육의 이상에 대한 선호가 점차 강해지고 있다.

학교에서 일반학생들을 가르치는 스포츠 활동이 건강이나 체력만이 아니라 인지적, 정의적 효과를 가져다주는 것에 대해서는 다양하고도 수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체육수업 모형이나 프로그램들도 많이 개발되었으며, 꾸준한 실천으로 어느 정도의 효과성을 인정받고 있다. 우선, 뇌 과학적 연구의 발달로 신체활동이 뇌의 혈류량을 증가시켜 뇌기능을 향상시킨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향상된 뇌기능은 사고능력을 증진시켜서 기능적, 비판적 사고력을 높여주는 가능성을 지닌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따라서 학생들의 수학과 과학에서의 학업성취도가 높아진다는 연구들이 행해지고 있다(이규일, 2012; 조옥상, 2012).

정의적 영역에 있어서도 학생들의 정서, 사회적 특성, 및 도덕적 인성의 향상이 이루어짐을 밝혀내고 있다. 먼저, 불안, 스트레스, 노여움 등의 부정적 정서가 감소되고 자긍심, 자신감같은 긍정적 정서가 증가됨을 보고하고 있다. 폭력, 절도 등의 부정적 행위나 일탈이 예방되거나 감소되고, 이타성, 협동심, 리더십같은 친사회적 행동이 발달하고, 자기관리, 책임감, 팀워크 등의 개인적, 대인적 생활기술이 향상되는 효과가 확인된다. 특히, 도덕적 인지력이나 성품과 같은 인성적 차원의 함양이 발견됨을 알려준다(박정준, 2011; 최의창, 2009, 2010; Weiss, 2011).

학교교육이 추구하는 것은 전인교육이며, 학교체육의 지향은 지덕체의 균형적 발달임을 강조하면서, 전인교육적 가능성에 주목하는 체육교육의 노력이 있어왔다. 특히, 가장 최근 운동과 다른 내용을 통합적으로 가르치는 하나로 수업 모형의 전인교육적 효과를 알아보는 연구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체육활동을 통해서 체육의 올바른 이해에 기초하여 체육활동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되고, 체육의 다양한 측면들을 지적으로 이해하게 되며, 타인존중이나 협동심 함양같은 인성적 차원의 효과도 함께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최의창, 2011). 다만, 이같은 효과는 운동만을 가르쳐서 습득하기 어려우며, 반드시 체육의 서사적,

인문적 차원에 대한 고려가 함께 주어져야 함을 주장한다. 이에 대해, 서장원(2008)은 하나로 수업의 초등학교에의 적용을 통하여 체육적 창의력(智), 체육적 문해력(體), 또래간 친화력(德)의 균형적 발전이 이루어졌음을 보고하고 있다.

III. 체육활동을 통한 전인적 청소년교육의 실천노력

1. 정규 체육수업을 통한 실천노력

체육시간에 학생들의 지덕체 차원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는 노력은 체육수업모형의 체계적 적용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지난 20여 년간 모형기반체육수업(model-based physical education)의 적극적 도입을 통하여 국내외적으로 비체계적이고 기능중심적인 체육수업, 권위주의적이고 교사중심적인 체육수업을 탈피하려는 시도가 증가하였다. 선진국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학생 중심적이고 학습지향적인 체육수업, 배움이 있고 즐거움이 넘치는 체육수업을 향한 기대가 현장에서 충족되어가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학교에서의 청소년 문제가 사회적 수준으로 확대되어감에 따라, 인성교육의 주요 해결방안을 체육활동과 체육교육에서 찾으려는 정부의 의지가 교육과정에 반영되어 그 결과 체육수업 시수의 증가까지 이루어졌다.

체육교육 영역에서 주목받은 모형들은 스포츠교육모형, 이해중심게임모형, 하나로수업모형, 책임감모형, 협동학습모형, 탐구학습모형, 직접교수모형, 개별화수업모형 등이다. 이들 가운데 학생들의 전인적 발달에 직접적인 관심을 가지고 체육수업을 진행하는 모형으로는 책임감모형, 스포츠교육모형, 그리고 하나로수업 모형 정도다. 나머지 모형들은 체육장면에서 개발된 것이 아니라, 일반 교육모형을 체육적으로 활용한 것들이다. 이 가운데 책임감 모형은 정의적 영역, 특히 책임감과 협동심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체육수업의 목적을 추구한다. 스포츠교육 모형과 하나로수업 모형은 보다 포괄적인 수준에서 신체적, 인지적, 정의적 영역 전반에 대한 관심을 지니고 체육수업을 이끌어가려는 특징을 갖는다. 다만, 스포츠교육 모형에서는 스포츠퍼슨(sportsperson), 하나로수업 모형에서는 전인(wholeperson)이란 표현을 통해 지덕체의 전 면모를 균형있게 발달시키려고 한다.

특히 최근의 활발한 연구를 통해서 실제적인 수업에의 적용과정과 적용효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이 두 가지 모형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스포츠교육 모형은 국내는 물론 지난 20여년간 전 세계적으로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고 실천되어온 체육수업 모형이라고 볼 수 있다(김무영, 이승배, 문호준, 2010; Kitchin, 2006). 스포츠퍼슨은 스포츠 기능이 뛰어나고, 지식이 풍부하고, 열정이 넘쳐나는 특징을 지닌 사람이다. 스포츠를 시즌제(최종 대회)와 팀체계(팀

역할)로 운영하여 체험하도록 함으로써 우리가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장면에서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스포츠인의 특성들을 학습토록 한다. 예를 들어, 김관우, 김승재(2003)는 중학교에서 핸드볼 수업으로 아이들이 정의적 영역의 수업요인, 심리적 요인, 및 사회적 요인들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었음을 보고하였다. Kitchin(2006)도 그동안의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운동기능적으로 향상된 것은 물론이고, 아이들의 사회적지지, 상호작용 및 적극적 지지력 등의 측면에서 월등한 효과를 얻었다는 점, 책임감과 주인의식이 상승되었다는 점, 그리고 타인에 대한 존중심과 포용력이 높아졌다는 점들에 대해서 확정적인 연구결과를 소개하고 있다.

하나로수업 모형은 한국 체육교육의 지속적인 전인교육 강조에 대한 하나의 직접적 대답을 마련하기 위해서 개발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모형의 철학과 지향을 “전인교육”으로 하고 있다(최의창, 2010). 온전한 사람, 혹은 참 좋은 사람으로 부르는 “전인”은 자신을 성찰하고 타인을 배려하며 체육을 사랑하고 세계를 존중하는 전반적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전인을 함양하려는 지덕체의 내용을 개인의 신체적, 인지적, 정의적 수준에 한정하지 않고, 자신은 물론 제이자와 제삼자 그리고 세상의 수준까지 확대하여 이해한다. 이러한 총체적 발달을 위해서는 스포츠를 운동기능만이 아니라 문화활동으로서 체험하고 습득해야 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학생을 전인으로 성장하는 길 위에 서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내용으로서 스포츠를 “운동시합”(a game)에 그치지 않고 “실천전통”(a practice)으로 파악하고 그 안에 입문시키는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가정한다. 그리고 체육수업은 운동기능과 인문적지혜와 서사적 체험이 통합적으로 융합되어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의창(2011)은 하나로 수업 모형을 체육수업에 적용함으로써 초등학교(전세명, 2010; 천지애, 2013), 중학교(이정민, 2011), 고등학교(김남규, 2011)의 맥락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에 대하여 전인교육적 효과를 얻고 있음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요약해준다. 질적 연구가 대부분이지만, 계량적 방식으로 전인교육적 효과를 검증하려는 연구들도 진행되었다.

2. 스포츠클럽이나 운동부를 통한 실천노력

학교내 스포츠클럽(동아리)이나 운동부(학교대표팀)의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는 시도도 현재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때의 스포츠지도는 통상적으로 “코칭”(coaching)으로 이해되어 접근되고 있다. 북미와 유럽에서는 이미 스포츠 활동을 “선수중심 코칭”(athlete-centered coaching)으로 진행시켜야 한다는 주장과 실천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기술중진이나 승리추구만을 강조하는 클럽활동으로는 청소년의 바람직한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확신하고, 지역사회 스포츠클럽리그에서의 스포츠지도 및 대회시에 이 점을 강조한다. 이들은 스포츠 코칭이 스포츠 “교육”의 기회라고 생각하며, 단순한 운동기술 배우기를 넘어서

운동을 통한 전인적 성장을 당연시하며 기대하고 실천한다.

수많은 단체와 프로그램과 실천가들이 스포츠교육으로서의 스포츠코칭을 희망하고 있다. 그 가운데 학교 내에서는 물론 생활체육의 장면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몇 가지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우선, 가장 널리 알려진 단체로 미국에서 결성된 *Positive Coaching Alliance* (www.positivecoaching.org)가 있다. 이 단체는 <Positive Coaching>(Thompson, 1997, 2003)이라는 스포츠코칭 개념을 추구하며 청소년을 지도하는 코치와 부모들을 위한 스포츠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실제로 지도프로그램도 수행한다. 시합에서 이기는 것을 중요시하면서, 정정당당히 이김으로써 청소년에게 긍정적 가치를 가르칠 수 있는 배움의 장으로서 스포츠를 강조한다. “승리와 교훈”(시합에서 이기기과 삶을 위한 가르침), 두 가지 목표를 한꺼번에 추구하는 “일거양득코칭”(double-goal coaching)을 주장한다. 미국과 전 세계 주요나라에서 인지도를 높이며 가장 대표적인 스포츠를 통한 전인적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영국의 코치를 위한 대표적 기관인 Sportscoach UK에서는 최근 <전인적 아동을 위한 코칭: 스포츠를 통한 긍정적 발달>(Hopkins, 2010)이라는 책자를 출간하였다. Lerner 등(2005)이 개발한 5C 모형을 스포츠 영역에 변용시켜 수정한 Cote(2010)의 5C 모형(competence, confidence, connection, character & caring, creativity)에 기초하여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지향한 스포츠코칭 지침서를 개발하였다. 자신의 수행역량에 대한 긍정적 시각, 어떤 일에 대한 능숙함과 자존감, 사람과 제도에 대한 긍정적 유대감, 사회적 규정에 대한 존중심과 옳고그름에 대한 판단력과 타인에 대한 동정심과 공감력, 그리고 자기 자신만의 문제해결력이 스포츠를 통해서 길러져야만 하는 C들이다. 그리고 각각의 C가 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기능적, 기술적, 사회적 차원들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발현되고 발달되어야 하는가를 상세하게 명목화시켜 놓았다. 각각의 세목이 0세부터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아동을 총체적으로 발달시키는 구체적 성취표준이 되는 것이다. 장기적 선수발달(Long-Term Athlete Development)의 관점에서 청소년 시기에는 신체적, 정신적, 태도적 측면의 전면적이고 균형적인 발전이 중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캐나다에서도 LTAD의 원칙위에서 선수들의 총체적 발달을 도모하고 있다. Camire(2012)이 스포츠를 통한 전인적 청소년 발달에 관심을 집중한 대표적 인물이다. 그는 특히, 고등학교 운동부 활동에서 어떻게 아이들의 총체적 발달이 가능한지, 그것을 쉽게 혹은 어렵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스포츠코치와 그가 펼치는 코칭은 어떠한 공헌을 하는지를 상세하게 연구하고 있다. 특정 프로그램이나 모형은 아니지만,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는 고등학교의 운동부 및 코치 사례를 중심으로 운동부를 통해서 훌륭한 인간적 가치들이 어떻게 가르쳐지고 전달되는지를 요약 정리해서 알려준다. 여기서 코치는 대부분 의도적으로 학생선수들의 전인적 성장을 추구했다. 이들은 분명한 코칭철학을 지닐 것, 선수들과 인간적 관계를 형성할 것, 코칭을 발달단계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을 것, 선수들이 생활기술을 습득하도록 할 것, 선수들에게

생활기술을 전이시키도록 가르칠 것과 함께, 코치들은 항상 선수들을 도와주려는 태도를 보이고, 지도종목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지니며, 선수의 발달과 발전을 우선시하며, 동기유발을 잘 시키고, 최고의 노력을 요구하며, 최선을 다하도록 자극하며,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방식으로 팀을 운영해야만 한다.

3. 스포츠교육용 프로그램을 통한 실천노력

일단의 연구자들에 의해서 개발된 스포츠교육 프로그램들을 기반으로, 다양한 맥락에서 스포츠가 실행됨에 따라 최근에는 그 활용과 필요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학교내에서만 아니라,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영역에서도 직접적으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종합적으로 분류했을 때, 한 가지 종목을 중심으로 스포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다양한 종목들을 융합하여 하나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두 가지 방식이 가장 흔하게 활용되고 있다.

전자의 형식을 갖춘 프로그램들로는 *The First Tee*(골프), *YES-Soccer*(축구) *Play It Smart*(미식축구), <태권도인성교육> (태권도) 등이 있다. *The First Tee*(TFT) 프로그램은 청소년에게 필요한 라이프 스킬(생활기술)들을 가르치고 습득하도록 만드는 데에 있어서 골프를 주된 환경으로 활용한다. 외적 자산이라고 불리는 코치, 동료 멘토,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의 지도에 의지하며, 기본반석이라고 하는 4가지 원칙에 근거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신체활동중심, 발달과정중심, 자기주도중심, 그리고 계속학습중심(activity-based, mastery-driven, empower youth, continuous learning)을 기초로 골프의 기초 기술을 배워나간다. 이를 통해서 대인적 기술, 자기 관리 기술, 목표설정 기술, 그리고 대응 기술 등의 내적 자산들을 가르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TFT의 9대 핵심가치인 정직성, 성실성, 존중심, 책임감, 예의범절, 스포츠맨십, 자신감, 판단력, 인내심을 기른다. 전 세계적으로 250개 이상의 프로그램 실천 기록을 바탕으로 지난 10여 년간 꾸준한 효과연구가 진행되어왔으며, 청소년을 위한 라이프 스킬은 물론 심리적, 사회적 자질들의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www.thefirsttee.org).

YES-Soccer(Youth Education through Sportsmanship-Soccer: YESS)는 한국에서 10대 청소년들을 위하여 개발한 축구 스포츠맨십을 통한 청소년 스포츠인성교육 프로그램이다(최의창, 박정준, 2011). 축구를 잘 하기 위한 축구기술(sport skill)과 일상생활을 잘 하기 위한 인성덕목(life virtue)을 함께 함양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학습의 단계를 인식—명료화—실천가치경험—이야기가치경험—반성과정인(awareness—clearness—learning in action—learning in story—reflection & transfer)로 삼고 교육을 진행시켜 나간다. 인성덕목 6가지와 18가지의 스포츠맨십 스킬(1덕목당 3개씩)을 18차시에 걸쳐 학습하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성실, 정직, 배려, 협동, 존중, 사랑이 인성덕목 6가지이며, 각 덕목당 3개씩의 스포츠맨십 스킬을 선정하여 목표설

정, 끈기, 책임, 실수인정, 규칙준수, 양심, 공감, 도움, 보살핌, 소속감, 의사소통, 리더십과 팔로워십, 자기존중, 타인존중, 문화존중, 축구에, 공동체의식, 사회적 헌신이 길러지도록 하였다. 효과성에 관한 본격적 연구는 진행되지 않고 있으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과 지역사회봉사 프로그램을 통해서 활용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청소년의 인성발달 측면에 있어서 긍정적인 자체평가 결과를 얻고 있다(표 2 참조).

Play It Smart(PIS)는 고등학교 풋볼운동부 운영에 함께 사용되는 전인적 발달 프로그램으로 개발되었다. 1년간의 스케줄로 진행되며 학업코치가 도움을 주도록 되어있다. 선수들은 운동 포지션만이 아니라 개별적 역할분담을 맡고, 그룹스터디에 참가하고 수업에 반드시 들어가야하는 등의 기본 원칙을 따라야 한다. 진로계획력, 의사결정력, 문제해결력 등의 목적이 중요시된다. 미국 전역의 약 150여개 고등학교에서 채택하여 실천해오고 있다.

<태권도 인성교육>(대한태권도협회, 2013)은 태권도를 통해서 유청소년의 인성교육을 올바르게 인도하려는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이다. 태권도가 건강과 시합을 위주로 지도되는데 그치지 않고, 아이들의 전인적 인격발달에 공헌하는 훌륭한 수련의 장임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개인적 취향위주로 지도되던 인성적 발달에 대한 하나의 표준화된 교육과정과 지도매뉴얼을 제공함으로써 한국 전역에 있는 태권도지도자들의 공통된 지도프로그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도장과 가정을 연계하여 보다 유기적인 지도의 효과가 확보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있다.

<표 2> YES-Soccer 프로그램의 내용(최의창, 박정준, 2011)

차시	덕목	스포츠맨십 스킬	주제	이야기	인물	기능연습	전술
1	성실	목표 설정	자신의 꿈 정하기	▶목표 설정의 중요성 ▶리프팅의 탑인 ▶각자의 길	▶백승호 ▶이정용 ▶우희용 등	리프팅	.
2		끈기	참고 견디며 최선을 다하기	▶끈기의 광태휘 ▶거북이와 토끼 ▶최선보다는 끈기	▶광태휘	드리블 드리블 셔플런	.
3	정직	책임	맡은 일에 열심히 임하기	▶대한민국 역대 베스트 11	▶차범근 등	경기	포지션
4		실수 인정	자신의 실수를 사과하기	▶이영표의 실수	▶이영표	4각패스 원형 패스 게임	패스워크
5		규칙 준수	약속을 잘 지키기	▶스로운의 원리	▶이영표	스로운 동작 축구규칙	오프사이드 트랩
6		양심	바른 마음으로 행동하기	▶수아레스의 반칙	▶아르센 벵거	게임 심판 역할	.

7	배	공감	마음을 헤아려 축구하기	▶영화 '비상' ▶황금툴과 은물	.	트래핑, 슈팅	.
8	려	도움	서로 도우며 축구하기	▶브라질 대표팀	.	패스	스루패스, 오버래핑, 커버링
9		보살핌	친구 보살피며 축구하기	▶축구에서의 보살핌	▶손흥민 ▶세브첸코 등	경기	.
10		소속감	우리모둠, 소속감 가지기	▶진정한 축구 영웅 조지 웨아	▶조지웨아	모듬아이덴티티 정하기	전술&포지션 정하기
11	협	의사소통	축구로 소통하기	▶소통의 리더십 ▶영화 '인빅터스'	▶허정무	경기 (의사소통하며)	2:1패스 오버래핑 등
12	동	리더십과 팔로워십	밀어주고 당겨주며 축구하기	▶리더십 유형 알아보기	▶히딩크 등	경기 (리더&팔로워 역할 수행)	.
13		자기 존중	자기자신 존중하기	▶장애를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	▶메시 ▶이충성 ▶닉 부이치치	부족한 기능 연습	.
14	존	타인 존중	서로서로 존중하기	▶무모한 반칙	▶이청용 ▶지단 ▶홍명보	태클 연습	5:5 경기
15	중	문화 존중	축구문화 존중하기	▶붉은 악마 이야기 ▶폭력적 응원문화 홀리건	.	경기 관람 질서 준수, 응원 등	.
16		축구애	다양한 방식으로 축구하기	▶붉은 악마 응원 ▶작은 영웅 박지성	▶박지성	.	나만의 울스타팀 만들기
17	사	공동체 의식	축구를 통해 하나되기	▶축구를 통한 통합 ▶영화 '맨발의 꿈'	.	친선경기	.
18	랑	사회적 현신	축구를 사랑 나누기	▶FC바르셀로나 ▶이케지레렐바	▶임흥세 ▶히딩크	일일 축구 교실	.

IV. 학교체육에서의 실천을 위한 시사점 논의

교육적, 발달적 관점에서 청소년에 대한 전세계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회와 환경이 더욱 복잡해지며 경제적 수준이 천차만별이고 욕구가 다양화되고 자기중심의 상대적 가치관이 만연하면서, 청소년들의 성장과 발달에 심각한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음을 인지함과 동시에 공공의 차원, 혹은 국가적 차원에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선진국은 이미 1980년대부터, 우리나라를 포함한 새로운 OECD 회원국가들은 20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자국 청소년의 안녕과 정서에 대한 문제점을 느끼고 예방책과 해결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왔다. 여기에 스포츠가 주요 대안으로 떠오른 것은 상대적으로 최근의 일이다.

앞의 두 절들에서는 여러 나라에서의 학술적 동향과 실천적 노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어떤 내용들은 아직 이론의 수준과 개념적 주장에 머물러 있는 것들도 있다. 하지만, 많은 시도들이 진행되어왔고 실패와 성공의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주로 성공사례들 가운데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소수의 연구와 아이디어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작은 규모로 진행되거나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권의 나라들에서 주장되고 실천되고 있는 것들은 두말할 필요없이 이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이다. 이러한 한계점을 인지한 가운데, 국내외에서의 동향에서 발견되는 특징들과 시사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표 3 참조). 특히, 학교체육에서의 성공적인 전인적 청소년 교육을 위해서 어떠한 점에 주의해야 할 것인지를 알아본다.

스포츠를 통한 전인적 청소년 발달의 요인과 조건들을 살펴보는 연구들은 최근에서야 본격화되고 있다. 이 연구들은 기존 연구들을 리뷰하여 공통되는 특징들을 찾아내거나, 혹은 오랜 기간의 종단적 사례연구를 통해서 체육프로그램의 효과를 파악하고 그 주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분석해낸다(Sandford, Armour, & Duncombe, 2008; Sandford, Armour, & Warmington, 2008; Sandford, Duncombe, & Armour, 2008). 이 가운데 특히, 최근 Armour, Sanford 및 Duncombe(2013)은 영국에서 5년간 (2003-2007) 진행된 대규모 스포츠교육 프로그램 2개의 실행 효과를 살펴보고 지속적인 효과를 가져다준 주요 “실행현장에서의 메카니즘”을 6가지로 요약해서 보여준다. 이밖의 몇몇 다른 연구들도 비슷한 시도를 통해서 전인적 청소년 발달을 위한 스포츠 프로그램 활용에 있어서 최적의 조건과 최고의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곳에서는 이들의 연구에서 밝힌 6가지(최적대상 선발, 탈학교적 맥락화, 학생참여 확대, 인간관계 조성, 상호협동 강화, 지속참여 보장)를 중심으로 그것들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첫째, 스포츠 프로그램의 목적과 참여대상 청소년의 구체적 요구를 최대한 일치시킨다(최적대상 선발). 즉, 현재 제공되는 프로그램의 내용과 성격을 가장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대상일 때, 프로그램의 효과는 최대화될 수 있다. 그런 학생들이어야만 흥미를 유지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프로그램의 목표를 성취하는 성과를 올릴 수 있다. 그렇지 못하면 중도에 쉽게 탈락하는 것은 물론이고 최종성과획득이라는 면에서도 낮은 성취도를 보인다. 일단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은 지향하는 목표가 미리 설정되어 있으므로,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제대로 선발하는 절차와 방법들을 명확하게 준비하고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신청하는 이를 모두 참가시키는 방식은 득보다 실이 많았다고 보고하고 있다.

둘째, 프로그램 활동을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학교수업 맥락을 벗어나는 곳이나 그것과는 다른 내용으로 구성한다(탈학교적 맥락화). 학교에서 흔히 하는 기존 활동들도 괜찮았으나, 학교를 벗어나서 진행되거나, 학교에서는 배워본 적 없는 전혀 새로운 활동들이 특히 많은 환영을 받았다. 이것은 이 프로그램들이 특성상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에 위치한 학교들을 선정함으로써, 대부분 학생들의 새로운 스포츠 활동들에 대한 갈급함을 채워주었기 때문이다. 듣고 보기만 했지 해보진 못한 활동들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아이들은 동기유발과 호기심이 극대화될 수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살고 있는 동네를 벗어나서 새로운 운동장이나 체육관이나 기타 장소를 방문하여 그곳에서 학습체험을 하는 것에 대한 신선함을 맛보게 됨으로써 동기는 더욱 강화되었다.

셋째, 활동을 선정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진행을 검토할 때에 아이들과 긴밀히 함께 작업한다(학생참여 확대). 청소년들이 아직은 어리지만, 그렇다고 생각도 없고 의견도 없는 것은 절대 아니다. 자신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스스로가 이끌어가고 그 과정에 주체적인 입장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하는 순간부터 학생들은 더욱 더 열심히 참여하게 된다. 소속감과 주인의식이 프로그램 성공의 관건인 것이다. 최초 준비단계에서 참석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 더욱 좋을 것이나, 일반적으로 시작이 되고 진행의 과정에서 조정과 피드백을 위한 참여가 가능하다. 진행과정에서 프로그램의 내용 선정이나 목표의 검토와 확인도 참여가 가능하다. 그리고 정기적 의견수렴을 통한 진행중 조정과 최종적인 평가의 과정에서도 청소년들의 주체적 참여는 많은 긍정적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넷째, 프로그램 리더, 멘토, 학생들간에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한다(인간관계 조성). 최종수준에서 본다면, 스포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관리담당자들(행정가, 교사, 스태프 등)과 교육을 담당하는 멘토들, 그리고 학생들 사이에 진행되는 직접적 교류와 소통의 양과 질이 프로그램 성공의 직접적 결정요인이다. 특히, 멘토와 학생간의 인간적 친밀도는 핵심중의 핵심 사항이라고 알려져 있다. 학생들은 멘토들이 교사이자 손위 어른으로서의 권위적인 자세와 입장을 유지하지 않고, 학습자의 눈높이에서 보다 낮은 자세로 학생들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누차 강조하고 있다. 일반 학교의 교사와 학생같은 관계 속에서는 프로그램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멘토들도 역시 관리자들과의 대화를 통한 프로그램 분위기 유지와 신뢰의 공감대를 매우 중요한 근무환경으로 지적하고 있다.

다섯째, 청소년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기회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기회를 제공해준다(상호협동 강화). 현재 대다수의 스포츠 프로그램들은 청소년의 부족한 사회적, 정의적 차원의 자질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요즘 청소년들의 사회성 부족과 개인주의적 성향은 국가를 막론하고 공통적인 현상이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청소년은 반드시 다른 사람과의 사회적 관계 형성이 필요하며, 다른 이를 위하거나 함께 일하는 체험을 많이 겪어야만 한다. 같은 또래의 친구들과 함께 신뢰감 속에서 문제를 의논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맛보는 체험을 갖게 됨으로써 협동심, 배려심, 공동체정신, 인내심, 희생정신 등에 대한 구체적 고민과 그것의 가치발견을 동시에 할 수 있게 된다. 자발적이고 계획된 방식으로 사회적 관계 증진의 기회가 반드시 필요하다.

여섯째, 프로그램 활동 또는 보완적인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화된 경로가 있어야만 한다(지속참여 보장). 거의 모든 스포츠 프로그램은 일정기간만 참여할 수 있지 평생동안 또는 오랜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종료 이후에 학생들이 어떻게 긍정적 발달효과를 장기적으로 유지하거나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가에 대한 후속적 조치, 또는 보완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속적인 참여기회, 또는 연계되는 프로그램이 제공됨으로써 보다 발전적인 수준에서 학생들의 전인적 발달이 유지될 수 있으며 보다 장기간에 걸쳐 꾸준히 내면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된다. 청소년들의 내적 변화는 극적인 계기에 의해서 폭발적으로 진행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중단없이 어떤 방식으로든 유사한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오랜 기간 참여함으로써 보다 근본적이고 본질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표 3> 스포츠 활용 전인적 청소년교육 프로그램의 성공요인

연구	제언 내용
최의창, 박정준 (2012)	법과 제도 개선의 기초 마련
	• 학교체육 관련 법안의 재정비
	• 학교체육 활동에서 스포츠 인성 평가 시스템 구축
	• 학교체육 활동의 상급학교 진학 자료로서의 활용 강화
	• 학교체육에서의 인성교육 증장기 전략수립
	학교체육 활동 정책의 내실화
	• 학교체육 프로그램별 인성교육 방향 설정과 내실화
	• 학교체육에서의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활성화
	• 스포츠맨십 캠페인 및 일상생활 실천 운동 전개
	• 현직 체육교사교육에서의 인성교육 강화
최의창, 안양옥, 이옥선(2013)	전인적 지도자의 양성 및 관리 체계 마련
	• 스포츠강사의 인성교육 의무화
	• 예비체육교사의 인성교육 체계화
	• 스포츠 인성교육 전문 강사 양성
	• 스포츠 인성교육 정책 추진 조직 체계화
	지속적 추진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
	• 스포츠 인성교육에 관한 연구 시스템 구축
	• 학교체육 시설의 변화를 통한 인성 함양 토대 마련
	프로그램 목표의 명확화
	• 전인교육, 청소년의 긍정적 발달, 스포츠를 통한 삶 가르치기
김기철, 서지영, 김택천, 허현미 (2012)	프로그램 내용의 다양화
	• 스포츠 문화, 다양한 종목, 생활기술
	프로그램 운영의 체계화
	• 참여주체의 다각화, 참여방식의 다양화, 심리적/구조적 환경제공, 스포츠교육자로서의 지도자
	프로그램 지원의 연계화
	• 학부모의 지원, 유관기관의 행정적 지원, 교사집단의 목표 합의, 지역사회와의 협력
	프로그램 요소
	•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의 재개념화를 통한 용어 재규정
	• 교육과정 개정을 통한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운영 지침 마련
	• 학교 특성에 따른 운영 방안 마련
인적 요소	• 스포츠강사의 자격 강화 및 정규화 방안 모색
	• 일반 교과 교사들의 인식변화 및 전문성 강화
	• 학교 주변 인적 인프라의 적극적 활용
물적 요소	• 현실적 수준에서의 재정 확충 방안 모색
	• 합리적 재정 배분 방안 모색
	• 적극적 학교 체육시설 개선 및 확충 방안 모색
	• 학교체육과 지역사회체육 간의 연계 방안 모색
	•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지원센터(가칭)’ 신설

오대균(2014)	인적자원	• 지도교사 전문성 신장, 지도교사의 열정 고취, 행정지원가 역할 확대
	운영방법	• 학년중심 성찰활동 확대, 학생중심 체험활동 확대, 저학년리그, 교내리그 확대
	행정지원	• 타당한 평가척도 개발, 학급운영과 동일한 지원, 학교급간 연계성 강화
Amour, Sanford & Duncombe (2013)	최적대상선발	• 스포츠프로그램의 목적과 참여대상 청소년의 요구 일치
	탈학교적 맥락화	• 프로그램 활동의 탈학교적 맥락화
	학생참여확대	• 활동선정과 목표설정과정에서의 학생참여 확대
	인간관계형성	• 프로그램 리더, 멘토, 학생간의 긍정적인 관계 조성
	상호협동강화	• 청소년의 봉사과 협동활동 강화
	지속참여보장	• 지속참여 보장을 위한 시스템 마련
Perkins & Noam (2007)		• 신체적, 심리적으로 안전하고 적절한 구조 마련, 청소년과의 친밀한 관계 조성
		• 소속과 참여의 기회 증진, 긍정적인 사회규범 습득 기회 제공
		• 문제해결을 위한 자기효능감 증진, 운동기술과 문화 습득의 기회 제공
		• 스포츠맨십 함양을 위한 기회 제공, 적극적 학습 촉진
		• 팀활동에 대한 인식의 기회, 강점강화의 관점에서 프로그램 구성
		• 총체적, 생태통합적 프로그램 구성, 가족, 학교, 지역사회와의 통합적 노력

이들이 찾아낸 이 요인들은 프로그램 내적 요인들이다. 즉, 주변적 여건과 제도적 체계가 어떤 형태로 주어지건 간에, 프로그램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족되어야만 하는 요건들이라는 것이다. 청소년 교육을 위한 스포츠 프로그램이 충분히 작용하는 최소필수요건들로서 프로그램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마련되고 실행되어야만 한다. 물론, 이것들이 충분히 마련되지만 하면 “자동적으로” 효과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결국 프로그램에 대한 행정적, 정책적, 체계적 지원이 유기적으로 제공되고 작동되어야만 이 요건들의 충분한 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프로그램의 목적, 고객, 운영, 관계, 활동, 그리고 보완 등의 측면에 대한 입체적인 고려가 주어져야 함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주는 연구결과라고 하겠다. 물론, 이 모든 요건들이 “총체적으로” 어떤 방식과 어떤 과정을 거쳐서 유기적인 연결효과를 얻어내는 지에 대한 향후 연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국내에서는 학교체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의 전인교육과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구체적 방법론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시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다. 학교체육 수업이나 창의적 재량활동, 그리고 스포츠클럽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 또한 독자적으로 개발한 청소년 스포츠교육 프로그램의 활용을 통해서 어떠한 효과가 있으며, 그것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효과적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가 조금씩 진행되고 있다. 가장 최근에 최의창, 이옥선, 안양욱(2013)은 전인적 청소년 육성의 관점에서 “학교스포츠클럽”의 운영실태와 참여효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학교스포츠클럽이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전국의 초중고등학교들에 대한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여 우수학교들의 운영방법의 특징을 파악해내었다. 운동시간대의 다양화, 체육수업과의 연계적 보완, 학교스포츠클럽의 전통 확립과 입문, 분명한 기대와 경계의 제공, 학생과

의 관계형성, 열정과 헌신의 모델링을 보여주는 지도자, 자율과 규범의 수립, 부적응학생 지도의 장, 학부모 연계활동의 제공 및 긍정적 인식의 형성, 타과목 교사 및 행정가와의 협력강화의 10가지 주요 요인들을 밝혀내었다.

김기철, 서지영, 김택천 및 허현미(2012)는 2012년 2학기부터 새로이 부과된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은 기존의 스포츠클럽이 과외활동적인 성격을 띤 것과는 달리 정규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운영되는 형식을 띠도록 제안된 새로운 교과활동이다. 창의인성적 측면의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학교 체육수업시간을 1시간 증가하는 노력으로 201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도입되었다. 창의적 체험활동의 동아리활동 영역에서 해당되어 학생의 인성발달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기존의 스포츠클럽과 연계되어 운영하도록 되었다. 이들의 연구는 이 새로운 교과활동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현황과과과 개선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최종적으로 교과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적 차원(목적, 시수, 종목, 종목선정방식, 개발), 인적 차원(관심 및 지원, 지도주체, 전문성), 그리고 물적 차원(인건비, 교구비, 시설 및 교구)의 요인들이 제대로 준비되고 운용되며 평가되어야 함을 밝혀내었다(오대균, 2014 참조).

정과체육수업에서 진행되는 전인적 청소년 발달을 위한 스포츠 프로그램에 대한 포괄적 효과 연구는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 형편이다. 현재로써는 모형기반체육수업 접근(model-based physical education)(Casey, 2014; Kirk, 2013; Metzler, 2011)에 근거해서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는 데에 보다 집중하는 사회적 책임감 모형, 스포츠교육 모형, 그리고 하나로수업 모형의 세 가지 접근에 근거한 실천이 진행되고 있으며, 각각의 모형이 효과적으로 실천되기 위한 세부적인 요인들에 대한 단위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이 연구들은 아직은 종합적으로 어떠한 결정적 성공요인들을 확실하게 밝혀내는 수준으로 진행되지는 못하고 있으나, 개별 연구들의 공통된 결과는, 무엇보다도 체육교사의 전문성과 인성이 결정적 요인의 하나임을 확인해주고 있다. 아이들을 전인적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현장지도교사(강사)가 본인 또한 그러한 자질을 어느 정도 갖추어야 하고 또 갖추어나가야 하는 것임을 상기시켜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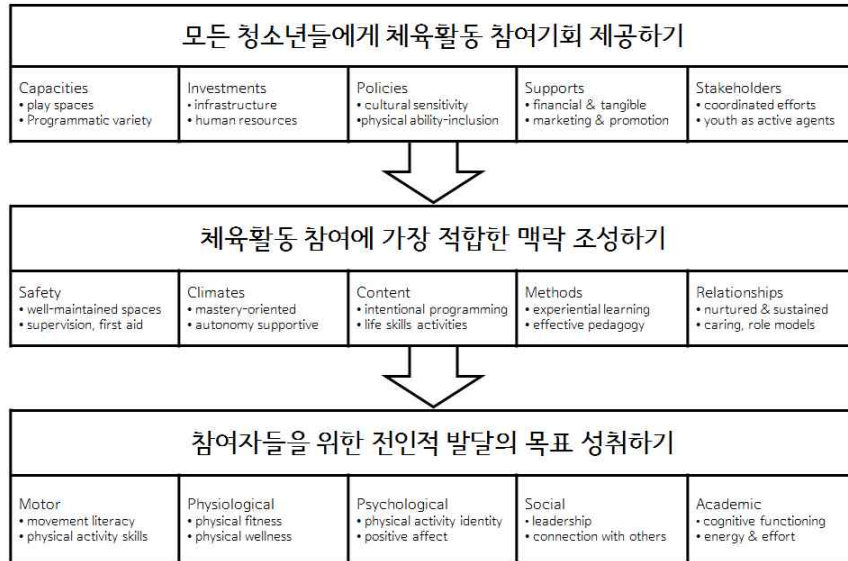
정과체육의 맥락을 중심으로 최근 최의창과 박정준(2012)은 학교체육수업에서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는 인성교육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한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들은 거시적인 수준에서 학교체육 전반에 걸쳐 인성교육(전인적 발달)을 전면에 내세우며 직접적으로 강조하는 교육과정 전반(목표, 내용, 방법, 평가, 운영체계 등)에서의 변화가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들의 제안은 획기적이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한국과 같은 중앙집권적 성격의 학교교육과정 운영시스템 내에서 청소년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운영체계 전반에 걸친 조치를 피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학교체육은 물론, 생활체육의 다양한 장면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하나의 모형을 제시한 경우도 있다. Weiss와 Weiss-Bjornstal(2009)는 학교체육, 스포츠, 건강증진의 맥락에서 행해진 청소년 발달관련 연구와 접근들을 포괄적으로 리뷰하고 정리하여 종합적 관점이라고 할 만한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다(그림 1 참조). 이들은 신체활동을 통해서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으로 균형잡힌 전인적 청소년을 육성하는 일을 진흥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인들(15개 요인과 30개 세부요소)과 차원들(3개)을 세밀하게 찾아내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묶어내었다. 첫 번째 단계는 모든 아이들에게 신체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신체활동에 적극참여할 수 있는 최적의 맥락을 조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대로 참여한 이들로부터 발달단계상으로 최적의 효과를 성취하는 것이다. 이 세 단계(차원)에는 각각 5가지 요인들이 관여하며, 각 요인 내에는 2개씩의 세부요소들이 작용하는 것으로 그려져 있다. 기회마련, 실제참여, 목표성취의 3단계에서 최적의 과정이 진행되도록 한다.

지금까지, 스포츠 프로그램을 통하여 전인적 청소년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최근의 노력들(이러한 노력을 총체적으로 일컬어 일반화되어가는 영어표현으로 “긍정적 청소년 발달”이라고 부를 수도 있으나, 나는 우리의 교육적 전통을 반영하여 “스포츠 전인교육”이라고 부르고 싶다)과 그것이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하여 필요한 주요 요인과 조치들을 포괄적으로 살펴보았다. 국내외의 연구들은 결국, 스포츠 전인교육(전인적 청소년 교육을 위한 스포츠 활용 노력)은 정책의 지원하에 학교체육교육 전체의 맥락에서 교사와 학생과 프로그램의 유기적 상호작용을 통해서만 제대로 성취될 수 있음을 알려준다. 프로그램만 좋아서도, 교사(강사, 멘토)만 유능해서도, 정책만 거창해서도, 예산만 충분하다고해서도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단순한 사업이 아니다. 이것은 청소년이라는 사람을 대상으로 교사라는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의 총체적 발달을 종합적으로 도모하는 인간적이며 예술적인 노력이다. 단순히 시간에 맞춰 재미있게 운영하여 참여를 늘린다고만 해서 목표한 결과가 얻어지는 기계적 작업이 아닌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Haudenhuyse, Theeboom 및 Skille(2014)는 청소년들이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보다 바람직한 상태로 나아질 수 있음을 경험적으로 밝혀주는 연구들은 아직 확정적으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것이 확실하게 가능한지를 최종적 수준에서 알려주지는 못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런 연구들이 확인해준 사실은 첫째, 전인적 발달이 스포츠에 참여한다고 저절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 둘째, 어떠한 의도적인 노력도 현재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것과 당면한 문제점들을 온전히 반영해야 한다는 점, 셋째, 스포츠 활동 자체만으로는 부족하며 전체적이고 총괄적인 프로그램의 맥락에서 실행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넷째, 최종결과는 참여자들이 체험하는 바가 어떤 성격의 것이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만을 알려주었을 뿐이다. 이들의 지적은 스포츠를 활용하여 전인적 청소년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것을 설명해주는 이론적, 개념적 설명체계도 반드시 요청된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심리학적, 사회학적, 교육학적 관점들이 적극적으로 반

영된 융합적 모형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림 1] 체육활동을 통한 전인적 청소년 육성에 필요한 근본적 기초요인들
(Weiss & Weiss-Bjornstal, 2009, p. 5)

V. 결론 및 제언

청소년 문제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점차 악화일로에 놓여있다. 긍정적 모습도 물론 보이지만, 부정적 모습이 더욱 만연해지고 심화되는 경향은 명약관화한 것 같다. 불행중 다행으로 청소년의 심리적, 신체적 특성상 체육활동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례와 주장이 점차로 증가하고 있는 현상은 고무적이다. 물론, 예전부터 개인적 수준에서 이같은 생각은 일반화되어 있었지만, 최근에는 사회적, 국가적 차원에서 청소년 문제해결의 주인공으로 체육활동을 내세우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심리학, 사회학, 교육학 등 다양한 시각에서 체육활동의 효과성과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소년 문제를 주요 연구 및 정책 영역으로 하는 분야, 기관, 연구자들은 최근들어 체육활동을 활용한 스포츠기반 전인적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에 관심을 갖고 재정적 투자를 지원하고 있다. 본 연구는 그러한 국내외적 동향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독특하게도 그 어떤 나라들보다도 정책적 차원에서 인성교육의 이슈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 지난 5년간, 특히 2년 전부터는 학교체육활동이 급격한 발전

을 이루었는데, 특히 중학교의 경우 정규교과시간이 증가하고, 고등학교의 경우 필수적으로 참여하도록 교육과정으로 규정되는 상태까지 발전하였다. 이런 파격적인 개선조치는 국내적으로는 처음이며 국제적으로도 흔치 않은 실정이다. 정과체육영역만이 아니라, 스포츠클럽, 방과후활동, 그리고 토요스포츠데이 등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건강, 인성, 지식적 측면의 균형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또는 상대적으로 많이) 확보된 것이다. 하지만, 아직 시행 초기이고 참여를 증가시키는 것에 전반적인 초점이 놓이다보니, 전인적 발달을 지향하는 구체적 노력과 방안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지는 못하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권민정, 2012a, b; 최의창, 2012).

최근의 동향을 전반적으로 분석한 본 연구를 통해서 현재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학교체육 진흥 정책이 추구하는 인성교육(인성교육의 가치를 내걸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지덕체가 하나된 사람으로 키우고자하는 교육과정의 이상을 실현하려는 전인적 청소년 육성의 노력)¹⁾이 현장에서 제대로 착근되어 소기의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주목되어야 하는 몇 가지 사안들을 언급하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최근 정책적으로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시도들이 현재의 아이디어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연결하여 설명한다.

첫째, 스포츠를 활용한 전인적 청소년 육성을 전담하는, 또는 적어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전문적 담당기관이나 부서가 설치되어야 한다. 최선의 방법은 교육부에서 공적 기관으로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이다. 정부관련 연구기관 혹은 대학같은 민간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설치할 수도 있다. 교육부의 지원으로 2013년 이화여자대학교에 <학교스포츠클럽운영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전국단위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게 된 것은 앞으로의 성공확률을 높여주는 노력이라고 하겠다. 영국에서처럼 YST같은 복권지원금으로 운영되는 청소년스포츠활성화 및 지원 전문기관을 신설하여 전향적이고 보다 폭넓은 맥락에서 학교체육을 중심으로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을 연계하는 통합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향후 필요하게 될 것이다. 2013년 학교체육진흥법의 시행으로 전담기관(부서)를 둘 수 있는 법적 기반은 마련되었기 때문에 이 기관을 중심으로 정책개발, 연구수행, 실천지원, 연수교육 등 전반적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안들을 전문적으로 수행해낼 수 있게 될 것이다. 연구자, 행정가, 체육교사 등이 함께 협동적 관계망을 만들어 운영하여야 한다.

1) 본 연구에서 언급하는 전인교육은 지덕체가 통합된 전인교육이 아니라 (덕성의 측면에 초점을 맞춘) 인성 교육에 한정된 느낌을 준다는 심사지적이 있었다. 이것은 스포츠 활동이 지덕체 전 영역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하나의 연구에서 전부 다룬 연구가 극히 드물고, 신체적 영역, 정의적 영역 및 인지적 영역 중 어느 한 부분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각각의 영역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을 모아서 신체적, 정의적, 인지적 영역 모두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제시한 논의 방식, 그리고 정의적 영역을 다룬 논문들이 숫자적으로 많이 다루어진 이유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긍정적 청소년 발달의 접근 부분에서 신체활동이 신체적, 인지적 영역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신체활동이 인지적, 신체적 영역의 발달에 보다 직접적인 관련성을 정리한 연구들로서는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2010)과 Bailey, Armour, Kirk, Jess, Pickup & Sanford(2009) 참조.

둘째, 청소년 스포츠 정책을 총괄적으로 이해하고 진흥하려는 종합계획과 청사진이 마련되어야 한다. 스포츠를 활용해서 전인적인 청소년을 육성하려는 노력은 학교의 담벼락 안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만 가능할 수 있는 폐쇄적 활동도 아니다. 스포츠를 학교체육과 생활체육, 그리고 전문체육의 범위까지 제도적, 행정적, 현실적으로 잘 연계될 수 있는 방식으로 체험가능하도록 환경을 만들어 놓아야만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참여를 통해서 청소년들의 전인성(wholeness)이 보다 더 잘 계발될 수 있는 것이다. 전 생애에 걸친 다양한 참여와 계속적 참가를 보장할 수 있는 장기적 생활체육참여의 전 과정에 놓여진 청소년기의 활용으로써 참여진흥계획이 필요한 것이다.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박근혜정부의 국민생활체육진흥정책으로 발표한 <스마일 100 프로젝트>(문화체육관광부, 2013)에서 생애주기별로 진흥정책을 개발한 것은 캐나다나 영국에서 진행시키고 있는 “장기적 스포츠참여자 개발”(Long-Term Participant Development)이라는 선진국형 진흥방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처음으로 청소년기를 독립적 진흥대상 및 시기로 구분해서 참여증진을 위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마련한 정책이라 하겠다. 교육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과의 적극적 협조를 통해서 최대한의 정책효과를 의도하고 있다.

셋째, 학교체육의 현장과 생활체육의 광장에서 실제로 스포츠를 활용하려고 할 때 요청되는 프로그램과 그것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양질의 지도자 및 운영인력의 지속적 공급이 필요하다. 정기적 현직연수(직무연수, 자율연수 등)가 의무화되어 있는 현재의 시스템에 좀더 방향성을 제공하여 체육교사(스포츠강사)들이 전인적 청소년 육성에 대한 국제동향, 신규정책, 교육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 지식과 인성적 자질을 높이도록 안내하거나 일정부분 의무적인 조항을 부가한다. 예를 들어, 2011년부터 체육인재육성재단에서 실시하는 학교운동부지도자 역량강화 의무연수의 내용도 인성과 윤리가 강조되어있다. 체육교사와 스포츠지도사에게도 유사한 연수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동시에 이러한 새로운 교육적 방안들을 실제로 현장에서 실행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미리 마련된 프로그램 패키지(수업모듈, 수업지도안, 가이드북 등)가 다양하게 개발되어야만 한다. 축구, 농구, 체조, 육상 등 여러 가지 종목들을 활용하거나, 남녀, 초중등, 소외, 비만, 부적응아 등 대상의 구체적 필요에 맞도록 세분화된, 그리고 전문지식이 부족하더라도 쉽사리 적용할 수 있는 수업(강의, 강습)계획 패키지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은 교사개인이나 교사연구단체에서는 마련하기 불가능하므로 교육부나 교육청 차원에서 준비해서 공급해주어야만 한다. 최근에 교육부, 한국과학창의재단, 또는 민간기관 등에서 스포츠교육 수업모형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제작하여 무료나 유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참고문헌

- 교육부(2013). **학교체육주요업무계획**. 서울: 교육부.
- 권민정(2012a). 학교스포츠클럽 정책의 전개과정 분석 및 교육적 담론. **한국체육학회지**, 51(5), 321-333.
- 권민정(2012b). 한국형 스포츠클럽의 교육적 역할 및 향후 과제.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19(4), 45-65.
- 김기철, 서지영, 김택천, 허현미(2012).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김남규(2011). 고등학교 체육수업내실화를 위한 하나로 수업 모형 적용 및 실천 사례연구. 박사학위논문, 경상대학교.
- 김무영, 이승배, 문호준(2010). 한국 스포츠교육모형의 연구 동향: 성과와 과제.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17(2), 21-39.
- 김선희(2010). **청소년스포츠와 코치교육: 반성과 대안**.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선희(2012). 위기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스포츠교육 실천모형.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19(2), 27-43.
- 김관우, 김승재(2003). 스포츠교육모형의 적용이 핸드볼 수업에 미치는 효과.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10(2), 111-127.
- 대한태권도협회(2013). **태권도 인성교육 프로그램**. 서울: 대한태권도협회.
- 문화체육관광부(2013). **국민생활체육진흥종합계획 심포지엄**.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 박정준(2011). **통합적 스포츠맨십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 중등학교체육에서의 가능성과 한계점**.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서울대학교스포츠과학연구소(2005). **선수에 대한 폭력행위 실태 및 근절 대책**. 대한체육회 연구용역보고서.
- 서장원(2008). 전인교육 실현을 위한 초등체육에의 통합적 접근 : 서사적 관점에 근거한 하나로 수업 적용. 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 오대균(2014). 학교스포츠클럽의 교육적 운영 개선을 위한 중학교 우수사례 질적 분석.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이규일(2012). 뇌 과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체육교육의 의미.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19(4), 17-44.
- 이민근(2009). 청소년 스포츠농구클럽에의 인문적 접근.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 이옥선(2012). 체육전공대학생들의 청소년기 스포츠참여를 통한 생활기술 습득 경험과 요인탐색.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19(1), 1-22.
- 이정민(2011). 글읽기, 글쓰기를 통한 고등학교 여학생 체육 가르치기 : 서사적 접근의 가능성

- 탐색.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전세명(2010). 하나로 수업 모형을 통한 초등체육 교수-학습과정의 통합적 접근.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정현우, 박정준, 최의창(2013). 영국 “학교스포츠파트너십” 정책 분석을 통한 학교체육정책 개발 및 실행의 실제적 시사점 탐색.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20(2), 1-24.
- 조옥상(2013). 학교체육이 학생들의 지능과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메타 분석.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19(2), 177-196.
- 천지애(2013). 즐거운 생활의 재발견 : 초등 통합교과 수업모형으로서 하나로 수업의 가능성 검토.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최의창(2005). 호울 스포츠와 하나로 코칭: 인문적 스포츠교육론 서설.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12(3), 97-120.
- 최의창(2009). 코치의 인성적 자질 함양을 위한 인문적 접근 탐색.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16(1), 119-143.
- 최의창(2010). 스포츠맨십은 가르칠 수 있는가? 체육수업에서의 정의적 영역지도의 어려움과 가능성.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17(1), 1-24.
- 최의창(2011). 학교체육수업을 통한 정의적 영역의 교육: 통합적 접근의 가능성 탐색. **체육과학연구** 22(2), 2025-2041.
- 최의창(2012). **즐거운 학교체육 활성화: 현황분석과 정책대안**. 2014 미래교육공동체포럼 발표자료. 서울: 직업능력개발원.
- 최의창, 박정준(2011). **Yes-Soccer: 스포츠맨십을 통해 배우는 인성교육**. 국제피스스포츠연맹, 서울대학교스포츠과학연구소.
- 최의창, 박정준(2012). **학교체육에서의 인성교육 실태분석 및 정책실천과제 개발 연구보고서**. 서울: 대한체육회.
- 최의창, 이옥선, 안양옥(2013). **전인적 청소년 육성관점에서의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실태 및 참여효과분석**. 서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1). **청소년 정책기본계획수립을 위한 토론회**.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Armour, K., Sandford, R. (2013). Positive youth development through an outdoor physical activity programme: Evidence from a four-year evaluation. *Educational Review*, 65(1), 85-108.
- Armour, K., Sandford, R., & Rebecca, D. (2013). Positive youth development and physical activity/sport interventions; Mechanisms leading to sustained impact. *Physical Education and Sport Pedagogy*, 18(3), 256-281.

- Arnold, P. (1997). *Sport, ethics and education*. London: Cassell.
- Bailey, R., Armour, K., Kirk, D., Jess, M., Pickup, I. & Sanford, R. (2009). The educational benefits claimed for physical education and sport: An academic review. *Research Papers in Education*, 24(1), 1-27.
- Camire, M. (2012). *Facilitating positive youth development through high school sport*. Doctoral Thesis. University of Ottawa.
- Carlsson, B., & Hedenborg, S. (2011). The development of youth sport in Sweden. In B. Houlihan & M. Gren(Eds.). *Routledge handbook of sports development*(pp. 143-160). New York: Routledge.
- Casey, M. (2014). Model-based practice: Great white hope or white elephant? *Physical Education and Sport Pedagogy*, 19(1), 18-34.
-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0). *The association between school based physical activity, including physical education, and academic performance*. Atlanta, GA: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 Clifford, C., & Feezell, R. (2009). *Coaching for character*(2nd ed.). Champaign, IL: Human Kinetics.
- Coakley, J. (2011). Youth sports: What counts as “positive development?” *Journal of Sport and Social Issues*, 35(3), 306-324.
- Collin, M. (2013). Youth sport and UK sport policy. In A. Parker & D. Vision(Eds.). *Youth sport, physical activity and play*(pp. 13-26). New York: Routledge.
- Cote, J., & Gilbert, W. (2009). An Integrative Definition of Coaching Effectiveness and Expertise. *International Journal of Sports Science and Coaching*, 4(3):307-323.
- Damon, W. (2004). What is positive youth development?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59, 13-24.
- Ehrmann, H. (2011). *Insideout Coaching: How sports can transform lives*. New York: Simon & Schuster.
- Eime, R., Young, J., Harvey, J., Charity, M., & Payne, W. (2013). A systematic review of the psychological and social benefits of participation in sport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Informing development of a conceptual model of health through sport.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Nutrition and Physical Activity*, 10, 98-118.
- Haudenhuyse, R., Theeboom, M., & Skille, E. (2014). Towards understanding the potential of sports-based practices for socially vulnerable youth. *Sport in Society*, 17(2), 139-156.
- Hellison, D. (2010). *Teaching personal and social responsibility in physical education*(3rd ed.).

- London: Human Kinetics.
- Holt, N.(Ed.). (2008). *Positive youth development through sport*. London: Routledge.
- Hopkins, D. (2010). *Coaching the whole child: Positive development through sport*. London: Sport Coach UK.
- Jones, M. I., Dunn, J. G. H., Holt, N. L., Sullivan, P. J., & Bloom, G. A. (2011). Exploring the '5Cs' of positive youth development in sport. *Journal of Sport Behavior*, 34, 250-267.
- Kidman, L., & Lombardo, B. (Eds.). *Athlete-centered coaching: Developing decision makers*(2nd eds.). Worchester, UK: ICP Press.
- Kinchin, G. (2006). Sport education: A view of the research. In D. Kirk, D. Macdonald & M., OSullivan(Eds.)(2006). *Handbook of physical education*(pp. 596-609). London: Sage.
- Kirk, D. (2013). Educational Value and Models-Based Practice in Physical Education. *Educational Philosophy and Theory*, 45(9), 973-986.
- Lerner, M., Lerner, L., Almerigi, B., Theokas, C., Phelps, E., Naudeau, S., et al.(2005). Positive youth development, participation in community youth development programs and community contribution of fifth-grade adolescents: Findings from the first wave of the 4-H study of positive youth development.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25, 17-71.
- Lheraud, J-L., Meurgey, B., & Bouchet, P. (2011). The development of sport and youth in France. B. Houlihan & M. Green(Eds.). *Routledge handbook of sports development*(pp. 131-142). New York: Routledge.
- Merkel, D. (2013). Youth sport: positive and negative impact on young athletes. *Open Access Journal of Sports Medicine*, 4, 151-160.
- Metzler, M. (2011). *Instructional models in physical education*(3rd ed.). New York: Holcomb Hathaway
- Oakeshott, M. (1989). Learning and teaching. In M. Fuller(ed.), *The voice of liberal education: Michael Oakeshott on education*(pp. 43-62).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Perkins, D. & Noam, G. (2007). Characteristics of sports-based youth development programs. *New Directions for Youth Development*, 113, 75-84.
- Sandford, R., Armour, K., & Duncombe, R. (2008). Physical activity and personal/social development for disaffected youth in the UK: In search of evidence. In N. Holt(Ed.). *Positive youth development and sport*(pp. 97-110). London: Routledge.
- Sandford, R., Armour, K., & Warmington, P. (2008). Re-engaging disaffected youth through physical activity programmes. *British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32(2), 251-271.
- Sandford, R., Duncombe, R., & Armour, K. (2008). The role of physical activity/sport in

- tackling youth disaffection and anti-social behavior. *Educational Review*, 60(4), 419-435.
- Shields, D., & Bredemeier, B. (2009). *True competition; A Guide to pursuing excellence in sport and society*. Champaign, IL: Human Kinetics.
- Thompson, J. (1997). *Positive coaching*. New York: Harper.
- Thompson, J. (2003). *Double goal coach*. New York: Harper.
- Vella, S., Oades, L., & Crowe, T. (2011). The role of the coach in facilitating positive youth development; Moving from theory to practice. *Journal of Applied Sport Psychology*, 23, 33-48.
- Weiss, M. (2011). Teach the children well: A holistic approach to developing psychosocial and behavioral competencies through physical education. *Quest*, 63, 55-65.
- Weiss, M., & Weiss-Bjornstal, D. (2009). Promoting positive youth development through physical activity. *Research Digest* 10(3), President's Council on Physical Fitness and Sports, Washington DC.
- Weiss, M., Kipp, L., & Bolter, N. (2013). Training for life: Optimizing positive youth development through sport and physical activity. S. Murphy(Ed.), *The Oxford handbook of sport and performance psychology*(pp. 448-475).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Zarret, N., Fay, K., Li, Y., Carrano, J. Phelps, E., & Lerner, R. (2009). More than child's play: Cariable- and pattern-centered approaches for examining effects of sports participation on youth develop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45, 368-382.

* 논문접수 2014년 8월 4일 / 1차 심사 2014년 9월 4일 / 게재승인 2014년 9월 22일

* 최의창: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에서 학사 및 석사를 졸업하고, 미국 University of Georgia에서 스포츠교육학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한국체육과학연구원과 건국대학교를 거쳐 현재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스포츠를 통한 전인교육과 청소년교육, 그리고 학교체육수업 개선을 주된 연구주제로, 그리고 이를 위하여 체육교사와 코치 등 스포츠전문인의 전문능력 개발을 실천과제로 삼고 있다. 인문적 지혜와 서사적 접근이 강조되는 인문적 체육교육의 철학을 바탕으로 하나로 수업 모형을 실천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인문적 체육교육과 하나로 수업>, <체육전문인 교육>, <가치 없는 길 1, 2, 3> 및 <코칭이란 무엇인가?> 등이 있다. 옮긴 책으로는 <학교를 개선하는 교사>, <반성적 교사교육>(공역), <마인드 스포츠> 등이 있다.

* E-mail: ecchoi67@snu.ac.kr

Abstract

Utilizing Sport for the Positive Youth Development: Identifying Recent Trends and Implications for School Physical Education^{*}

Choi, Euichang^{**}

The Interest in positive development of youth and the concern about their problems are increased at the same time. Advanced countries such as USA, England, Canada and EU countries including Korea have put various efforts in order to improve the positive development of youth through sport and physical activity. This study purports to identify the prac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n school physical education. through the analysis of recent international sport policies, best practices, and cases. First,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Korean youth are identified and the discussions on the possible help from sports are summarized. Second, a review is conducted on the youth policy, sport programs, implementation cases, and actual physical education programs around the advanced countries. Third, the characteristics of each programs are revealed through this review, and after that practical implications and policy suggestions are identified for Korean school physical education. Finally, some important points are identified for the improvement of sport policies and physical education practices for Korean youth.

Key words: youth sport education, school sport, sport policy, youth development

^{*} This study was supported by 2012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Education Research Fund.

^{**}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